

'6월 모평' 긴급진단... 수시합격 향한 이정표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향방을 가늠할 6월 모의평가가 끝났다. 이번 시험은 단순한 성적 확인을 넘어 수시 원서 전략과 정시 가능성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종로학원 자체점 자료를 토대로 수시 합격 전략을 짚어본다.

이번 모평의 가장 큰 특징은 국어와 수학의 평이한 출제다. 국어 1등급 컷은 화법과 작문 97점, 언어와 매체 95점 수준으로 추정되며 수학과 중상위권 원점수 상승이 두드러졌다. 쉬운 시험일수록 한 문제 실수가 등급 하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목표로 한 안정적인 실전 운영이 중요해졌다. 특히 재학생은 본수능에서 졸업생과의 표준점수 경쟁이 불리할 수 있어 수시 전략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반면 영어는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영어 1등급 비율은 약 4.9%로 예상되며 지난해 본수능의 어려운 기조가 이어졌다. 그동안 영어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다른 과목으로

최저를 맞추던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빈칸 추론과 간접 쓰기 등 취약 유형을 집중 보완하고 영어 변수를 고려한 과목별 등급 관리가 필수다.

탐구영역에서는 이른바 '사탐 런' 현상이 대입 지형을 바꾸고 있다. 자연계 학생들의 사람 이동이 늘면서 과탐은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사람은 만점자 증가로 한 문제 실수의 부담이 커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별 반영 방식이다. 주요 대학과 전국 11개 의과대학이 사탐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만큼 자연계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 구조를 바탕으로 유불리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올해 6월 모평 졸업생 점수 비율은 1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반수생과 검정고시생까지 합하면 본수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시에서 졸업생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3 재학생은 학생부와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수시 중심 전략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시 원서 조합 역시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교과전형은 최저를 넘는 순간 강력한 합격 카드가 될 수 있고, 최저를 요구하는 종합전형은 내신의

약점을 만회할 기회가 된다. 반대로 최저가 없는 전형은 지원자가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대를 준비하는 지방 학생이라면 지역의 사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전체 선발의 대부분을 수시로 모집하며 강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만 학생부 경쟁력을 갖춘 지역 인재에게는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6월 모평 이후에는 시기별 전략이 중요하다. 성적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여름방학에는 학생부 마감과 대학별 고사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수능 원서 접수 전에는 탐구 선택을 최종 점검하고, 9월 모평 결과를 반영해 안정 2장, 적정 2장, 상향 2장의 원칙으로 수시 원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번 6월 모평이 보여 준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어와 수학의 평이한 출제, 영어의 높은 난도, 탐구영역의 구조 변화,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졸업생 유입이라는 변수 속에서 승부를 가를 것은 전략이다.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과목 선택과 꾸준한 학습 관리, 그리고 냉정한 원서 조합이 2027학년도 수시 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이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K-방산, 반복된 사고가 묻는 안전의 무게



기 지 수 첵
원 관 희
(산업부)

K-방산의 성장 속도는 분명 놀랍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방산기업들은 해외 수주를 늘리며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천무와 K9, 항공 엔진, 우주 사업 등을 앞세워 K-방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성장이 빠를수록 함께 높아져야 할 기준이 있다. 안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는 고위험 방산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사업 규모와 위험도에 걸맞게 작동해 왔는지 돌아보게 한다.

이번 사고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고위험 공정에서 사고가 이어진다면 단순한 현장 실수나 우연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작업 절차, 설비 관리, 위험 감지 체계, 책임 구조 전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다연장로켓 천무와 공대지유도탄 천검 등을 생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수습과 안전성 검증이 길어질 경우 생산 일정뿐 아니라 협력업체 공급망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외 고객이 중요하게 보는 납기 신뢰도와 생산안정성 역시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방산기업의 경쟁력은 수주액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납기 이행 능력, 품질 관리가 모두 맞물려야 한다. 여기에 고위험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전관리 역량이 더해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가능하다.

사고 이후 특별 안전 점검과 생산 중단,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필요한 조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사후 점검을 넘어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고위험 공정의 자동화와 무인화, 안전 조직의 독립성, 현장 위험을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결국 생산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조직 문화가 뒷받침돼야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K-방산은 이제 양적 성장의 성과를 넘어 질적 신뢰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출 실적이 외형을 보여준다면 안전은 그 외형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세계 시장에서 오래 신뢰받는 방산기업이 되려면 더 많이 만드는 능력뿐 아니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1일 (음 4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작은 희생이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60년생** 나서면 골치 아프고 속이만 도움 받습니다. **72년생** 실력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84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49년생** 운이 좋으니 확실한 목표를 세우세요. **61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73년생** 노력만큼 인정도 따라주니 최선을 다하세요. **85년생** 가까운 사람을 더욱 잘 챙겨야 합니다.
- 50년생** 웃는 표정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62년생** 아랫사람보다 뒷사람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6년생** 겸손해야 안좋은 일을 면합니다.
- 51년생**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이 필요합니다. **63년생** 장기적인 관망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점진적으로 도약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노력한 만큼 결실도 따라옵니다.
- 52년생** 순탄하게 시작해서 순탄하게 끝냅니다. **64년생** 복잡한 일은 주변에 맡기세요. **76년생** 이상관계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88년생**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하루입니다.
- 53년생** 음식과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65년생** 신뢰를 지켜야 결과가 좋습니다. **77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이득을 봅니다. **89년생**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 54년생** 확실하지 않다면 멈추는 게 좋습니다. **66년생** 주위 생각보다는 본인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78년생** 급하면 체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노력하면 주위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 55년생** 경제적인 이유로 불편한 하루입니다. **67년생**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79년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조언을 경청하세요. **91년생** 컨디션이 좋지 않아 화를 내기 쉽습니다.
- 56년생** 외달라는 곳이 많아 분주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시험이 있으면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80년생** 뒷사람의 실수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92년생**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 57년생** 모나지 않게 행동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9년생** 일은 많은데 손은 부족합니다. **81년생**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93년생**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관계가 좋습니다.
- 58년생** 계획대로 진행하면 일이 잘 됩니다. **70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재물이 있습니다. **82년생** 먼저 손을 내밀지만 잘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94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거래는 삼가하세요.
- 59년생** 빠른 결정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1년생** 많은 변화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83년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95년생** 일보다는 마음 편히 쉬는 게 좋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커피 한 잔의 필화

'필화'(筆禍)란 붓으로 인해 일어난 재앙이라는 뜻이다. 발표한 글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제재를 받는 일을 가리키지만, 얼마 전 우리나라 제일의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광고문구로 사용한 탱크데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마케팅 차원의 카피 문구가 공분을 샀다. 스타벅스는 대표이사 해임을 했고 기업 회장의 대국민 사과까지 있었지만, 커피 불매운동은 물론 전세계 계열의 이마트나 백화점 역시 불뚱이 튀게 되었고 당장 실적 부진과 격감은 물론 브랜드 타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실수는 밑의 사람들이 했지만 결국 책임은 기업의 총수로 귀결되는 것이기에, 아마 기업 회장은 병오년이 불화살 격이라고 보았다. 특히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운을 읽을 수 있었다. 예로부터 관재구설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재앙의 발현이다.

조선 시대 때 사화가 일어나면 과직과 귀양은 물론 심하면 멸문지화까지 당하는 것처럼 사회의 발단은 모함이 대부분인데, 이 모함이 바로 관재구설에 해당한다. 우리가 삼재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삼재가 물상적으로는 물 불 바람으로 인한 재앙이지만 물상적으로 불은 바로 '구설'(口舌), 즉 말이나 글로 인한 재앙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재구설은 삼재 때 들어오는 대표적 재앙 중의 하나인 것이니 말 그대로 생각이 깊지 못한 경솔한 말이나 글 하나로 발생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옛사람들은 관재구설을 재앙으로 여겨 신년 운수나 토정비결에 관재구설 과가 나오면 근신에 가까운 몸가짐과 말조심을 했던 것인데, 삼재가 아니어도 연월일에 망신살이 들어오면 관재구설을 피하기 어려운데 사주에 식상관(食傷官)이 강한 사람은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글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6	8	4	7	2	9	8	9
9	9	2	8	6	8	4	7	1
8	4	7	9	1	6	2	9	8
7	9	4	1	8	9	9	2	6
6	8	8	2	9	1	7	9	4
9	2	6	4	7	9	1	8	8
2	7	9	6	8	4	8	1	9
4	1	9	8	2	9	8	6	7
8	1	9	9	7	6	4	2	8

2	9		6	8	3			
4	9	3			6			7
			7		9	5		
		1		7				
	5							3
			8		7			
		2	9		5			
1		7				2	5	6
5	8		2		3			1

5	7	6	3	8				4
					9	8		7
	9				7			5
4	2	8						6
9								
6			2					8
1		2	6					
3		9		1	5	6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2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